피겨여왕 김연아의 귀환 6년 만에 '해외 아이스쇼'

김연아

'피겨여왕' 김연아(28)가 6년 만에 해외 아이스쇼 무대에 선다.

김연아의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는 17일 김연아가 스페인에서 개최되는 '레볼루션 온 아이스(Revolution On Ice)' 아이스쇼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김연아가 해외 아이스쇼에 출연하는 것은 2012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아이스쇼 이후 6년 만이다.

그는 소속사를 통해 "오랜만에 해외에서 열리는 아이스쇼에 참여해 기쁘고 설렌다"며 "처음으로 스페인 피겨 팬들을 만나는 자리다. 즐겁게 공연에 임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연아는 이번 아이스쇼 출연료 전액을 유니세프(UNICEF)에 기부할 예정이다.

이번 아이스쇼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피겨 남자 싱글 동메달리스트인 하비에르 페르난데스 측이 주최한다. 페르난데스는 최근 올 시즌을 마치고 은퇴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레볼루션 온 아이스'는 21일(현시지간) 스페인 무르시아, 26일 라스팔마스 데 그란 카나리아, 28~29일 마드리드에서 열린다.

이번 아이스쇼에는 페르난데스를 비롯해 예브게니 플루셴코(러시아), 제프리 버틀(캐나다), 가브리엘라 파파다키스-기욤 시즈롱(프랑스) 등이 출연하며 데이비드 윌슨과 산드라 베직이 공동 연출을 맡았다. 뉴시스·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엑자시바시 이적 후 '리그 1위 탈환' 이끈 김연경의 진가

'배구 여제' 김연경(오른쪽)은 새 둥지인 엑자시바시 비트라에서 적응기를 거치면서도 자신의 존재감을 빛내고 있다. 공수에서 빼어난 활약을 펼치며 터키여자배구리그 최정상 탈환을 목표로 하는 소속팀의 질주에 힘을 보태고 있다. 뉴시스

김연경 효과…새 둥지 적응기 필요없어!

친정팀 페네르바체서 2차례 우승 경력
터키리그 컴백 후 리시브·디그 등 기여
엑자시바시, 6년 만에 리그 우승 근접

'우승 청부사' 김연경(30·엑자시바시 비트라)은 무대를 가리지 않는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와중에도 그의 진가는 거침없이 발휘된다.

엑자시바시는 터키여자배구리그 최정상 탈환을 꿈꾼다. 역대 최다인 17회 우승을 거둔 명문 구단이지만, 근래에 들어선 '라이벌' 바키프방크에 기세를 빼앗겼다. 2011~2012시즌 엑자시바시가 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린 후 6년간 바키프방크(4회)과 페네르바체(2회)가 리그를 양분했다. 해당 기간 페네르바체가 거둔 두 차례 우승(2014~2015,2016~2017)엔 김연경이 버티고 있었다. 엑자시바시가 구단 역사상 최고 대우로 김연경(2년)을 영입한 배경이다.

하지만 김연경에게 놓인 상황은 여러모로 익숙하지 않다. 등번호부터 달라졌다. 김연경은 한국·일본·터키·중국리그와 대표팀까지 수많은 무대서 줄곧 10번을 달았다. 그러나 엑자시바시에선 18번을 받았다. 10번은 조던 라르손이 쓴다. 팀 내 역할도 공격과 수비에 두루 걸쳐있다. 주포는 아포짓스파이커인 티아나 보스코비치다. 출중한 기본기로 공수를 겸장해온 김연경이지만, 엑자시바시에서의 공격 비중은 이전의 팀들에서보다 적다. 세터 감제 알리카야와의 호흡도 맞춰나가는 단계다.

그럼에도 '김연경 효과'는 곳곳에서 드러난다. 진가는 수비에 있다. 팀이 정규리그 8경기를 치른 가운데 리베로 심게 세브넴(80개)보다도 많은 98개의 리시브를 기록 중이다. 김연경이 리시브와 디그로 통하는 지상전에서 빠지면 엑자시바시의 전체적인 균형이 흐트러질 만큼 기여하는 바가 크다. 공격 면에서도 소홀한 법이 없다. 리시브 면제로 공격에 전담하는 보스코비치가 팀 내 가장 많은 87점을 책임졌는데, 김연경은 그 뒤를 이어 86점을 챙겼다. 감제와 100% 손발이 맞지 않는데다 처리하기 까다로운 공이 자주 올라오지만, 어떻게든 득점으로 이어내는 김연경의 기교가 녹아있다.

엑자시바시는 바키프방크와의 맞대결서도 번번이 웃고 있다. 11월1일 2018 터키여자프로배구 스포르토토 챔피언스컵(슈퍼컵)에선 바키프방크를 3-1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당시 10점을 올린 김연경으로선 새 팀에서 내딛은 성공적인 첫 발이었다. 15일엔 정규리그 첫 만남에서 바키프방크에 시즌 첫 패배를 안겼다. 이 경기 승리(3-1)로 엑자시바시는 리그 1위에 올랐다. 엑자시바시가 염원한 시나리오다. '배구 여제' 김연경이 있어 가능한 일이다.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

남북 남자핸드볼 단일팀, 22일부터 독일 전훈

내년 1월10일 세계선수권 준비
남측 16명·북측 4명으로 구성

내년 1월 10일 독일과 덴마크가 공동 개최하는 제26회 세계남자선수권대회에 단일팀으로 나서는 남북 남자핸드볼 대표팀이 본격적인 손발 맞추기에 돌입한다.

대한핸드볼협회는 17일, "남북 남자 핸드볼 단일팀이 22일부터 독일에서 합동 전지훈련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남측 선수들은 17일부터 진천선수촌에서 1차 훈련을 하고, 21일 대회가 열리는 독일로 출국한다. 북측 선수단은 22일 독일 현지로 합류해 약 2주 간 함께 호흡을 가다듬는다.

남자 핸드볼 단일팀 논의는 지난 5월초 국제핸드볼연맹(IHF)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IHF는 단일팀 선수엔트리를 16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는 등의 제안으로 단일팀 구성을 주도했다. 이후 남북 체육분과회담과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ANOC) 총회에서 단일팀 합의와 합동훈련 논의가 이뤄졌고, 대회가 열리는 독일에 조기 입국해 전지훈련을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단일팀의 명칭은 평창올림픽과 마찬가지로 '코리아'로 정해졌다. 약어는 COR이다. 단일팀은 개최국 독일을 비롯해 프랑스, 러시아, 세르비아, 브라질과 함께 A조에 편성돼 핸드볼 사상 최초 남북단일팀 출전의 역사를 써내려 갈 전망이다. 단일팀은 다음달 11일 독일과의 개막전에서 첫 발을 뗀다.

선수단은 남측 선수 16명과 북측 선수 4명으로 구성됐다. 남측은 베테랑 정수영(하남시청)과 나승도, 조태훈이 중심을 잡고 구창은(이상 두산), 장동현(SK호크스), 최범문(충남체육회), 정재완(하남시청) 등이 합류한다. 부상에서 돌아온 김동명(두산)과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활약한 박광순(하남시청), 박재용(한체대)도 재승선했다. 북측 선수 4명은 리경송(21), 박종건(20), 리영명(20), 리성진(29)으로 확인됐다.

독일과 덴마크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24개국이 참가해 4개조로 나뉘어 경기를 펼친다. 조별리그 각 조 상위 3개팀이 각각 2개조의 본선라운드에 진출한다. 여기서 조 2위 이내에 들면 준결승 진출 자격이 주어진다. 뉴시스·서다영 기자

스포츠토토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 결과

프로농구 〈17일〉

•2018-2019 SKT 5GX KBL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연속
1	현대모비스	23	20	3	0.870	0	12승
2	전자랜드	24	15	9	0.625	5.5	1승
3	KT	23	14	9	0.609	6	1승
4	LG	23	12	11	0.522	8	1패
5	인삼공사	22	11	11	0.500	8.5	1승
6	KCC	22	10	12	0.455	9.5	1패
7	SK	22	9	13	0.409	10.5	2패
8	오리온	23	9	14	0.391	11	1승
8	DB	23	9	14	0.391	11	2패
10	삼성	23	5	18	0.217	15	4패

•부문별 중간순위

평균 득점			평균 도움			평균 리바운드		
선수	팀	득점	선수	팀	도움	선수	팀	리바운드
① 펠프스	삼성	27.9	① 헤인즈	SK	5.4	① 라건아	현대모비스	14.9
② 메이스	LG	27.6	② 박찬희	전자랜드	5.3	② 메이스	LG	13.8
③ 포스터	DB	25.2	③ 먼로	오리온	5.1	③ 펠프스	삼성	13.5
④ 라건아	현대모비스	24.4	④ 포스터	DB	4.4	④ 할로웨이	전자랜드	13.5
⑤ 브라운	KCC	24.2	⑤ 그레이	LG	4.3	⑤ 브라운	KCC	13.4

프로배구 〈17일〉

•도드람 2018-2019 여자프로배구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득점	실점	연속
1	흥국생명	14	9	5	28	1224	1174	2승
2	IBK기업은행	13	9	4	26	1147	1048	3승
3	GS칼텍스	13	9	4	26	1077	1015	1승
4	도로공사	13	7	6	20	1135	1135	1패
5	인삼공사	14	5	9	16	1078	1137	4패
6	현대건설	13	1	12	4	907	1059	1패

•부문별 중간순위

총 득점				세트당 블로킹			
순위	선수	팀	득점	순위	선수	팀	블로킹
①	어나이	IBK기업은행	381	①	양효진	현대건설	0.80
②	톰시아	흥국생명	333	②	한수지	인삼공사	0.66
③	박정아	도로공사	290	③	김세영	흥국생명	0.64
④	이재영	흥국생명	278	④	정대영	도로공사	0.60
⑤	알레나	인삼공사	220	⑤	김수지	IBK기업은행	0.55

해외축구 〈17일〉

•프리미어리그

	팀	경기수	승점	승	패	무
1	리버풀	17	45	14	0	3
2	맨체스터시티	17	44	14	1	2
3	토트넘	17	39	13	4	0
4	첼시	17	37	11	2	4
5	아스널	17	34	10	3	4
6	맨체스터Utd.	17	26	7	5	5
7	울버햄튼	17	25	7	6	4
8	에버턴	17	24	6	5	6
9	웨스트햄	17	24	7	7	3
10	왓포드	17	24	7	7	3
11	본머스	17	23	7	8	2
12	레스터시티	17	22	6	7	4
13	브라이튼	17	21	6	8	3
14	뉴캐슬	17	16	4	9	4
15	크리스탈팰리스	17	15	4	10	3
16	카디프시티	17	14	4	11	2
17	사우스햄튼	17	12	2	9	6
18	번리	17	12	3	11	3
19	허더스필드	17	10	2	11	4
20	풀럼	17	9	2	12	3

득점

	선수	팀	득점
①	살라	리버풀	10
①	아우바메양	아스널	10
③	스털링	맨체스터시티	9
③	케인	토트넘	9
⑤	머레이	브라이튼	8
⑤	아게로	맨체스터시티	8
⑤	아자르	첼시	8
⑤	윌슨	본머스	8
⑤	히샬리송	에버턴	8
⑩	마네	리버풀	7
⑩	마샬	맨체스터Utd.	7
⑩	미트로비치	풀럼	7
⑬	라차제트	아스널	6
⑬	루카쿠	맨체스터Utd.	6
⑬	새인	맨체스터시티	6
⑬	시구르손	에버턴	6
⑬	잉스	사우스햄튼	6
⑬	페드로	첼시	6
⑬	펠리페	웨스트햄	6
⑳	루카스	토트넘	5

•경기결과

첼시	2 - 1	브라이튼	리버풀	3 - 1	맨체스터Utd.
사우스햄튼	3 - 2	아스널			

•분데스리가 경기결과

프랑크푸르트	2 - 1	레버쿠젠	라이프치히	4 - 1	마인츠05

•프리메라리가 경기결과

베티스	3 - 1	에스파뇰	바르셀로나	5 - 0	레반테
우에스카	2 - 2	비야레알	세비야	2 - 0	지로나

•세리에A 경기결과

AS로마	3 - 2	제노아	나폴리	1 - 0	칼리아리
피오렌티나	3 - 1	엠폴리	사수올로	2 - 0	프로시노네
삼프도리아	2 - 0	파르마	스팔	0 - 0	키에보

•르샹피오나 경기결과

릴	3 - 2	님 올랭피크	니스	1 - 1	생떼띠엔
올림피크리옹	3 - 0	AS모나코			

NBA 〈17일〉

•팀순위

동부 콘퍼런스

순위	대서양지구	승	패	순위	중부지구	승	패	순위	남동지구	승	패
1	토론토	23	9	1	밀워키	19	9	1	샬럿	14	15
2	필라델피아	20	11	2	인디애나	20	10	1	올랜도	14	15
3	보스턴	18	11	3	디트로이트	14	13	3	마이애미	13	16
4	브루클린	13	18	4	시카고	7	23	4	워싱턴	12	18
5	뉴욕	9	22	4	클리블랜드	7	23	5	애틀랜타	6	23

서부 콘퍼런스

순위	북서지구	승	패	순위	태평양지구	승	패	순위	남서지구	승	패
1	덴버	20	9	1	골든스테이트	20	10	1	멤피스	16	13
2	오클라호마	18	10	2	LAL	18	12	2	댈러스	15	13
3	포틀랜드	16	13	3	LAC	17	12	3	샌안토니오	15	15
4	유타	14	16	4	새크라멘토	16	13	3	휴스턴	14	14
5	미네소타	13	16	5	피닉스	6	24	5	뉴올리언즈	15	16

•경기결과

필라델피아	128 - 105	클리블랜드	새크라멘토	120 - 113	댈러스
인디애나	110 - 99	뉴욕	브루클린	144 - 127	애틀랜타
마이애미	102 - 96	뉴올리언즈	워싱턴	128 - 110	LAL
덴버	95 - 86	토론토			

아마추어 경기결과 〈17일〉

농구 ●2018-2019 KBL D리그 1차(경희대)

•현대모비스(4승3패) 86-82 KCC(3승4패), 상무(7승) 88-77 SK(1승7패)

•리그 현재 순위=① 상무(7승), ② 현대모비스(4승3패), ③ DB(3승4패), ③ KCC(3승4패)

경기 예고

프로농구 〈18일〉

•2018-2019 SKT 5GX KBL

LG	〈창원실내〉	DB
오후7시30분, IB스포츠, MBC스포츠플러스2		
SK	〈잠실학생〉	현대모비스
오후7시30분, MBC스포츠플러스		

프로배구 〈18일〉

•도드람 2018-2019 남자프로배구

한국전력	〈수원체육관〉	KB손해보험
오후7시, SBS스포츠		

아마추어 경기예고 〈18일〉

테니스 ●2018년 한국 실업 테니스 마스터즈대회(강원도 양구테니스파크)

배드민턴 ●2019 국가대표 선발전(경북 청송국민체육센터, 오전9시)

럭비 ●2018년 U-19 아시아 청소년 럭비 선수권대회(대만)